

# 정치적 난민과 월경(越境)의 문학\* \*\*

: 김시종의 경우

김 동 윤\*\*\*

- I. 들머리
- II. 4·3항쟁의 정치적 난민
- III. 유민으로서의 재일
- IV. 월경의 상상력
- V. 마무리

## 국문초록

김시종(1929~ )은 청년시절 제주4·3항쟁에 조직원으로 참여했다가 토벌군경의 검거를 피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밀항한 정치적 난민이었다. 1949년 이후 주로 오사카 일대에서 생활한 그는 『지평선』(1955)에서부터 『등의 지도』(2018)까지 여러 시집을 내면서 70년 동안 문학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일본어로만 시를 썼지만 일본시단의 바깥에 있었으며, 그렇다고 대한민국 시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단의 내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철저한 境界人이었다. 그의 시에는 혁명을 도모했던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면모,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실존 문제, 경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의 승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국경(이념)을 강조하면 인류의 평화는 불가능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라야 온전한 평화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온몸으로 입증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4·3항쟁의 정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627).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E-mail: kdongyun@hanmail.net)

치적 난민에서 뼈를 깎는 인식의 확장과정을 통해 진정한 越境人으로 거듭나는 김시종의 長征은 실로 처절하면서도 눈물겹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피어난 월경의 상상력은 그만큼 빛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바로 그것으로 인해 김시종 문학이 세계문학의 典範 반열에 당당히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김시종, 제주4·3항쟁, 정치적 난민, 월경(越境), 재일조선인

## I. 들머리

김시종(金時鐘, 1929~ )은 정치적 難民으로서의 歷程과 그에 따른 문학적 상상력의 승화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다. 제주를 어머니의 고향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원산이나 자신이 태어난 부산이 아닌, 제주를 고향으로 여긴다. 우리나라로 스물이 되던 해 그는 4·3항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일원으로서 통일독립 항쟁에 참여했던 그는 제주를 탈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맞닥뜨린다.

한밤중의 온화한 바닷바람 속에서 흘러나온, 금생에서 이별하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배 계획도 마련해뒀다. 모레 이 시간, 바위밭 근처로 배가 접근할 것이다. 그다음 조금 더 힘내서 견뎌라.” 드디어 어선에 오를 때가 되어 아버지는 재차 고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을 파먹는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마지막 부탁이다. 설령 죽더라도, 내 눈이 닿는 곳에서는 죽지 마라.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다.”<sup>1)</sup>

김시종이 난민의 출발점에 선 순간이다. 그는 1948년 5월 말 제주우체국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오랜 도피생활 끝에 일본으로 탈출하기 위해 제주도 본섬 북쪽의 무인도인 관탈섬으

---

1)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윤여일 옮김, 돌베개, 2016, 223쪽.

로 건너가던 1949년 5월 26일의 상황이다. 그 작은 섬에 나흘 동안 대기하다가 밀항선에 합류한 그는 고토열도와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6월 5일 오사카에 도착함으로써 재일조선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고향이/ 배겨낼 수 없어 계워넌/ 하나의 토사물로/ 일본 모래에 숨어들었던”<sup>2)</sup> 것이다. 초(燭) 만드는 공장→비누공장 잡무계→민전 오사카본부 임시사무소 비상임(서클 교실)→오사카문화학교 튜터·강사 등으로 재일 생활을 이어갔다.<sup>3)</sup> 그 와중인 1950년 5월 26일 「꿈같은 일(夢たいなこと)」을 『신오사카신문(新大阪新聞)』에 발표한 이후 김시종은 70년 동안 일본어로 시를 써왔다. 『지평선(地平線)』(1955), 『일본풍토기(日本風土記)』(1957), 『니이가타(新潟)』(1970), 『이카이노 시집(猪飼野詩集)』(1978), 『광주시편(光州詩片)』(1983), 『화석의 여름(化石の夏)』(1999), 『잃어버린 계절(失くした季節)』(2010), 『등의 지도(背中地図)』(2018) 등의 시집은 모두 일본어로 쓴 것이다.

매끄럽지 못한 일본어로 시를 써 왔으니 특히 사적 감정이나 사념의 표출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현대시와는 동떨어진 것이 저의 시였습니다. 말하자면 70년 동안 저는 일본시단 밖에서 시와 관여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술의 원천이라 불리는 시의 세계에서조차 재일조선인인 저는 분명히 일본 시의 경계 밖에 놓인 조선인 시인이었습니다.<sup>4)</sup>

김시종은 줄곧 일본어로 시를 써왔지만 일본 시단의 바깥에 있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시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단의 내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境界人이었고 그것이 그의 현실적인 삶을 힘들게 했지만, 바로 그 점을 오롯이 승화시킴으로써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을 그의 시의 특징으로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비

2) 김시종, 『니이가타』, 광형덕 옮김, 글누림, 2014, 32쪽.

3) 우체국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과 그에 따른 도피 생활, 그 이후 일본으로 가는 여정과 재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적 등은 『조선과 일본에 살다』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4) 김시종, 「경계는 내부와 외부의 대명사」,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2019, 65쪽.

‘국민’으로 내몰려 ‘인민’으로 활동하다가 ‘기민’이 되어 숨어 다니다가 ‘난민’으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 사회를 ‘유민’으로 떠돌았<sup>5)</sup>지만, 경계인으로서의 자기세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갔기에 越境의 문학으로 세계문학의 典範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시종의 시를 ‘재일조선인 시인’의 것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4·3항쟁이 빚어낸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면모를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실존 문제 등을 고찰해야 한다. 특히 절체 절명의 순간들을 돌파해 나가는 가운데 의미 깊게 확산되는 월경의 상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 4·3항쟁의 정치적 난민

김시종은 “나라를 잃어서 난민이 된 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난민이 발생<sup>6)</sup>한 경우다. 그는 단선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외친 4·3항쟁에서 봉기를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의 연락원으로 활동하다가 목숨 걸고 단신으로 탈출해야 했다. 해방공간에서 혁명을 도모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난민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4·3항쟁의 제반 상황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3사건을 전후해서 제주도에서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건너”<sup>7)</sup>갔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난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3항쟁이 빚어낸 정치적 난민의 문제는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아직까지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김시종조차 자신이 4·3항쟁으로 인한 난민임을 내세우는

5) 윤여일, 「4·3 이후 김시종의 ‘재일’에 관한 재구성」,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2019, 355쪽.

6) 한보희, 「난민의 나라, 문학의 입헌(立憲)」, 『작가들』 59, 인천작가회의, 2016, 183쪽.

7) 문경수, 「43과 재일 제주인 재론(再論): 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 19, 제주4·3연구소, 2019, 96쪽.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불과 칠 년 전까지도 4·3사건과의 관련을 아내에게조차 숨김없이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문 데는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남로당 당원이었음을 밝히면 ‘인민봉기’였던 4·3사건의 정당성을 훼손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당시는 ‘인민’이라는 말에 공감의 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도, 그 정권을 떠받친 미군정도, 이후의 군사강권정권도 43사건을 ‘공산폭동사건’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그 억지주장을 뒷받침하게 될까봐 꺼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 집착한 자기보신의 비겁함이 작용했습니다. 내 고백은 불법입국했다는 자백인 셈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강제송환당한다면 내 생애는 그로써 끝날 군사독재정권이 삼십 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이었습니다.<sup>8)</sup>

김시종은 오랫동안 자신의 4·3항쟁 관련 행적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했지만, 시에서는 저변의 곳곳에서 꾸준히 4·3항쟁을 표현하고 있었다. 공적으로나 일상에서는 의식적으로 입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와 재현을 생명으로 삼는 문학에서 어찌 그 엄청난 경험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난 작품만을 쓸 수 있었겠는가.

울고 있을 눈이/ 모래를 흘리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비명을 내질렀는데// 지구는 공기를 빼앗겨/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노란 태양 아래/ 나는 미라가 됐다 (「악몽」 부분)<sup>9)</sup>

첫 시집에 실린 작품으로, 1953년 11월에 창작한 것<sup>10)</sup>이다. 당시 그

8) 김시종, 「한국어판 간행에 부쳐」, 『조선과 일본에 살다』, 5-6쪽. 한편 문경수는 “김시종이 4·3사건의 체험을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은 2000년 4월 15일 ‘제주도 4·3사건 52주년 기념 강연회’에서의 강연으로, 2000년 5월 『凶書新聞』 2487호에 게재되었다.”고 했다. 김석범·김시종(문경수 엮음),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이경원·오정은 옮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5쪽.

9) 김시종, 『지평선』, 곽형덕 옮김, 소명출판, 2018, 64쪽.

10) 『지평선』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창작 시기가 명기되어 있다.

는 현실에서 4·3항쟁을 말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꿈에서라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절규하듯 내지른 그의 호소는 목에서 발화되지 않았다. 4·3의 혁명 활동과 관련해서는 외형만 생존하는 사람일 뿐 그대로 말라죽은 미라와 다를 바 없었다. 더구나 이 시를 쓰던 때는 다른 방식으로나마 통일을 기대하던 한국전쟁마저도 끝나버린 상황이었다.

봄은 장례의 계절입니다./ 소생하는 꽃은 분명히/ 야산에 검게 피어 있겠죠// 해방되는 골짜기는 어둡고/ 밑창의 시체도 까맣게 변해 있을 겁니다// 나는 한 송이 진달래를/ 가슴에 장식할 생각입니다./ 포탄으로 움푹 팬 곳에서 핀 검은 꽃입니다// 더군다나, 태양 빛마저/ 검은면 좋겠으나// 보랏빛 상처가/ 나올 것 같아서/ 가슴에 단 꽃마저 변색될 듯 합니다// 장례식의 꽃이 붉으면/ 슬픔은 분노로 불타겠지요/ 나는 기원의 회환을 짚 생각입니다만……// 무심히 춤추듯 나는 나비도/ 상처로부터 피의 분말을 날라/ 암술꽃에 분노의 꿀을 모읍니다// 한없는 맥박의 행방을/ 더듬거려 찾을 때, 움트는 꽃은 하얗습니까?// 조국의 대지는/ 끝없는 동포의 피를 두르고/ 지금, 동면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붉은색 이외의 꽃은 바랄 수 없고/ 이 땅에 기원의 계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봄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진달래가 숨쉬고 있습니다. (「봄」)<sup>11)</sup>

1953년 1월에 창작한 이 시의 현실에서는 진달래가 야산에 검게 핀다고 했다. 진달래는 한반도에 널리 피는 꽃이면서, 김시종이 주도한 재일조선인 詩誌의 이름으로서 그 창간호의 표제시에 “조선의 산하에 가장 많이 피는 꽃”이라는 주석이 달려있기에, 당시 진행 중이던 한국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공산당원으로서 고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문학적 참여를 보여주는 시임은 분명하다.<sup>12)</sup> 그러나 좀더 면밀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4·3항쟁에 연

11) 김시종, 『지평선』, 106-108쪽.

12) 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188쪽. “일본 공산당원이며 민전 활동가였던 김시종의 첫 시집 『지평선』(1955)에도 조선전쟁에 관한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소나기」, 「쓰르라미의 노래」, 「봄」, 「꿇주린 날의 기록」, 「거리는 고통을 먹고 있다」, 「가을의 노

결됨을 알 수 있다. 진달래야말로 바로 4·3항쟁을 상징하는 꽃<sup>13)</sup>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름에 봉화가 피어오르는 것은 산이 진달래로 물드는 어느 날이다.”<sup>14)</sup>—이는 봉기가 임박한 1948년 3월 말 상황에서의 조직 통지문의 내용이었다. 바로 진달래가 제주의 산천에 물들 때인 4월 3일 새벽 한라산 자락의 여러 오름에 봉화가 오르면서 봉기가 시작되었다. 그 혁명이 끝내 성공하지 못했으니 진달래는 검게 피어나는 것이고, 무자년(1948) 이후 진달래 피어나는 봄은 장례의 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슬퍼하며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다. 태양빛을 받아 그 꽃은 본래의 붉은 색을 되찾게 될 것인바, 그것은 분노의 불꽃으로 되살아남으로써 혁명의 뜻을 새로이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당시 김시중은 한국전쟁을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봄」을 창작했겠지만 그것은 그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반면에 4·3항쟁이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체험이었기에 전쟁의 상황도 그것을 바탕으로 상정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4·3항쟁과 한국전쟁은 분단 과정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폭발된 역사였다는 면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나의 봄은 언제나 붉고/ 꽃은 그 속에서 물들고 핀다// 나비가 오지 않는 암술에 호박벌이 날아와/ 날개 소리를 내며 4월이 흥역같이 싹트고 있다./ 나무가 죽기를 못내 기다리듯/ 까마귀 한 마리/ 갈라진 가지 끝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대로/ 나무의 용이라도 되었으리라./ 세기(世紀)는 이미 바뀌었다는데/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보이는 새가/ 아직도 기억을 쫓아 먹으며 살고 있다// 영원히 다른 이름이 된 너와/ 산자락 끝에서 좌우로 갈려 바람에 날려간 뒤/ 4월은 새벽의 봉화가 되어 솟아올랐다./ 짓밟힌 진달래 저편에서 마을이 불타고/ 바람에 흩날려/ 군경 트럭의 흙먼지가 너울거린다./ 초록 잎 아로새긴 먹구슬나무 밑동/ 손을 뒤로 묶인 네

래, 「여름의 광시」, 「정전보(停戰譜)」, 「당신은 이미 나를 차배(差配) 할 수 없다」 등이다.”

13) 4·3항쟁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동백꽃이 꼽힌다. 동백꽃은 희생당한 제주도민의 상징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봉기 시점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달래의 상징성이 훨씬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14)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185쪽.

가 뭉개진 얼굴로 쓰러져 있던 날도/ 흙먼지는 뿌영게 살구꽃 사이에서 일고 있었다. (「4월이여, 먼 날이여」 부분)<sup>15)</sup>

진달래가 다시 등장하는 「4월이여, 먼 날이여」은 세월이 많이 흘러, 공개적으로 4·3항쟁의 조직원이었음을 밝히고 한국도 다녀간 뒤에 쓴 작품이다. ‘짓밟힌 진달래’의 한편에서는 마을이 불타고 군경 트럭의 흙먼지가 흩날리고 민중들이 학살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4월은 새벽의 봉화가 되어 솟아올랐다’는 부분에서 보듯, 4·3항쟁기의 양상이 재현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시의 진달래는 짓밟히긴 했어도 다시 붉게 피어난다. 4·3항쟁 참여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그이기에 그날의 열정도 분명히 재생된다. 혁명의 꿈은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43항쟁 관련 메시지는 김시중 작품의 저변에서 끊임없이 흘러왔다.

그 가운데 각별히 주목되는 시기는 1959년이다. 「나의 성(性) 나의 목숨」과 『니이가타』는 모두 그 해의 작품인바, 김시중은 이때 작성하고서 4·3항쟁을 담아낸 시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가 도일한 지만 10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이다. 우선 고래의 생태에 빗대어 쓴 「나의 성(性) 나의 목숨」은 모두 5연의 시인데, 그 3연에서 4·3항쟁을 그려낸다.

팽팽/ 하게 된 로프에/ 영겁/ 조금씩 울혈하는 것은/ 매형인 김씨이다./ 26년의 생애를/ 조국에 걸었던/ 사지가/ 탈분할 때까지 경직되어 더더욱 부풀어 오른다./ “에이! 더러워!”/ 군정부 특별 허가의 일본 검이/ 해군비행예과연습생을 막 끝낸 특경대장의 머리위로 포물선을 그리고 있을 때/ 매형은 세계로 이어지는 나의 연인으로 변해 있었다./ 깎여진 음경의 상처에서/ 그렇다. 나는 봐서는 안 될 연인의/ 초경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가스실을 막 나온/ 상기된 안네의 사타구니에 낮게 낀 안개./ 흘러내린 바지 위에 여기저기 스며들어서/ 제주도 특유의/ 따뜻미지근한 계절 비에 녹아 스며들고 있다. (「나의 성(性) 나의 목숨」 부분)<sup>16)</sup>

15) 김시중, 『잃어버린 계절』, 이진경 외 옮김, 창비, 2019, 86-87쪽.

16) 재일에스닉잡지연구회 옮김, 『진달래·가리온』 5, 지식과 교양, 2016, 67-68쪽.



제주도에서 대형 김씨가 처형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군정부 특별 허가의 일본 김’이라는 표현은 4·3항쟁의 탈식민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4·3항쟁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처참한 폭력의 배경에 친일파 세력의 준동이 있었음을 암시하며,<sup>17)</sup> 그것은 또한 친일파를 중용한 미군정의 점령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도 보여준다.

장편시집 『니이가타』는 1970년에야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지만 김시종이 1959년에 완성해 두었던 작품이다.<sup>18)</sup> 특히 이 시집에서는 현대사 흐름 속에서 4·3항쟁을 의미 있게 포착했다. 제1부 ‘간기의 노래’의 ‘1’과 제2부 ‘해명 속을’의 ‘2’, ‘3’에서 충분히 확인된다.<sup>19)</sup>

이는 『가리온』 2호(1959)에 수록되었던 작품으로, 1960년 간행 작업 중 중단된 시집인 『일본풍토기Ⅱ』에 수록하려던 작품이기도 하다. 한편 동선희는 제목 「わが性 わが命」을 「우리의 성(性) 우리의 목숨」으로, 「義兄の金」을 「사촌형 김(金)」으로 각각 달리 번역하였다.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동선희 옮김, 어문학사, 2013, 86쪽 참조.

17) 호소미 가즈유키, 위의 책, 86-87쪽 참조.

18) 김시종은 “1970년 나는 뜻을 굳히고 그때까지 십 년 넘게 원고 상태로 끌어안고 있던 장편시집 『니이가타』를 소속기관에 자문하는 일 없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조선총련이 가하는 일체의 규제를 벗어던진 것입니다.”라고 회고하였다.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268쪽.

19) 『니이가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각 부의 제목	각 부분의 내용	각 부분의 공간 배경
제1부 간기(雁木)의 노래	1. 4·3항쟁에서 도일까지 2.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 3. 스타타(吹田) 사건 4. 니이가타에 도착	제주도→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니이가타
제2부 해명(海鳴) 속을	1.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 2. 4·3항쟁 3. 4·3항쟁과 그 이후 4. 우키시마마루 인양	마이즈루(舞鶴) 앞바다 제주도 제주도 마이즈루 앞바다
제3부 위도(緯度)가 보인다	1. 북조선 귀국선 2. 총련과의 갈등과 일본형사의 종족검정 3. 귀국하는 사람과 귀국 거부 4. 남겨진 자	니이가타 귀국센터 오사카 니이가타 귀국센터 니이가타(바다)

(호소미 가즈유키가 작성한 도표(위의 책, 108쪽)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남승원, 「김시종 시의 공간과 역사 인식: 제주에서 니이가타(新潟)까지」, 『영주어문』 32, 영주어문학회, 2016, 84쪽을 참조함.)

노랗게 변한/ 망막에/ 오랜/ 음화(陰晝)가 돼/ 살아있는/ 아버지./ 줄줄이  
 묶여/ 결박된/ 백의의 무리가/ 아가미를 연/ 상륙용 주정(舟艇)에/ 끊임없이/  
 잡아먹혀 간다./ 허리띠 없는/ 바지를/ 양손으로/ 추켜잡고/ 움직이는 컨베  
 이어라도/ 태워진 것 같은/ 아버지가/ 발돋움해/ 되돌아보고/ 매번/ 미끄러  
 지기 쉬운/ 주정(舟艇)으로 사라진다./ 성조기를/ 갖지 않은/ 임시방편의/ 해  
 구(海丘)에서/ 중기관총이/ 겨누어진 채/ 건너편 강가에는/ 냇을 잃고/ 호령  
 그대로/ 납죽 엎드려/ 웅크린/ 아버지 집단이/ 난바다로/ 옮겨진다./ 날이  
 저물고/ 날이/ 가고/ 추(錘)가 끊어진/ 익사자가/ 몸뚱이를/ 묶인 채로/ 무리  
 를 이루고/ 모래사장에/ 밀어 올려진다./ 남단(南端)의/ 들여다보일 듯한/ 햇  
 살/ 속에서/ 여름은/ 분별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얼굴을/ 비지처럼/ 빗어댄  
 다./ 삼삼오오/ 유족이/ 모여/ 흘러 떨어져가는/ 육체를/ 무언(無言) 속에서/  
 확인한다./ 조수는/ 차고/ 물러나/ 모래가 아닌/ 바다/ 자갈이/ 밤을 가로질  
 러/ 파르릉/ 울린다./ 밤의/ 장막에 에워싸여/ 세상은 이미/ 하나의/ 바다다.  
 / 잠을 자지 않는/ 소년의/ 눈에/ 새까만/ 셔먼호가/ 무수히/ 죽은 자를/ 질  
 질 끌며/ 덮쳐누른다./ 명령의/ 웅성거림에도/ 불어터진/ 아버지를/ 소년은  
 믿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질질 끌 수 없는/ 아버지의/ 소재로/ 소년은/ 조  
 용히/ 밤의 계단을/ 바다로/ 내린다. (『니이가타』 제2부 부분<sup>20)</sup>)

미 제국주의가 배후에서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양상이다. 1886년 8월  
 의 제너럴셔먼호가 침입하면서부터 야욕을 드러낸 미국의 조선 침탈을  
 드러냄으로써 43항쟁이 제국주의의 탐욕에 맞선 것이었음을 말한다.  
 위의 인용 앞에는 “아버지가 버려두고 떠난 북쪽 포구 안쪽의 조부를  
 / 소년은/ 샷갓과/ 담뱃대와/ 턱수염/ 만으로/ 선조를 이었다”라는 부분  
 이 있는데, 이는 원산이 고향인 아버지를 둔 김시종의 상황과 상통한  
 다. 이 작품의 ‘나와 ‘소년’은 “김시종 자신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소년  
 일반의 보편성을 지닌다.”<sup>21)</sup> 말하자면 “나와 ‘소년’은 김시종 시인의  
 삶을 자원으로 삼지만, 다른 행적이 섞여 들어가며 그의 개인적 행적에  
 서 충분히 벗어난 어떤 ‘누군가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sup>22)</sup>는 것이  
 다. 소년은 43항쟁의 처참한 현장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

20) 김시종, 『니이가타』, 95-100쪽.

21) 호소미 가즈유키, 앞의 책, 130-131쪽.

22) 이진경,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b, 2019, 106쪽.

피는/ 옆드려/ 지맥(地脈)에 쏟아지고/ 옛 화산인/ 한라를/ 흔들어 움직여  
/ 충천(沖天)을/ 불태웠다/ 봉우리마다/ 봉화를/ 뿜어 올려/ 잡아 찢겨진 조  
국의/ 둔한 신음이/ 업화(業火)가 돼/ 흔들거리고 있던 것이다. (『니이가타』  
제2부 부분)<sup>23)</sup>

위의 인용 부분은 무자년 4월 3일 새벽의 봉기 장면을 연상케 한다. “마침내 다가온 4·3날의 미명은 활짝 갠 쌀쌀한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1시를 전후해 수많은 오름에서 봉화가 피어올랐고 여기저기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파르께하게 쏘아올려졌습니다.”<sup>24)</sup>라는 시인의 회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혁명 세력의 파죽지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항쟁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단 하나의/ 나라가/ 날고기인 채/ 등분 되는 날/ 사람들은/ 빠짐없이/ 죽  
음의 백표(白票)를 던졌다./ 읍내에서/ 산골에서/ 죽은 자는/ 오월을/ 토마토  
처럼/ 빨갱게 돼/ 문드러졌다./ 붙들린 사람이/ 빼앗은 생명을/ 훨씬 상회할  
때/ 바다로의/ 반출이/ 시작됐다. (『니이가타』 제2부 부분)<sup>25)</sup>

여기서의 ‘오월’은 5·10단독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말한다.<sup>26)</sup> 제주에  
서의 단선 반대 투쟁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sup>27)</sup> 남쪽만의 단독정부 추  
진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생고기가 나뉘는 것처럼 분단이 확정되고 말  
았다. 그에 따라 밀항을 통한 정치적 난민이 속출했음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다. 김시종도 물론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23) 김시종, 『니이가타』, 106-107쪽.

24)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189쪽.

25) 김시종, 『니이가타』, 104-105쪽.

26) 김시종은 『니이가타』 주석(182쪽)에서 “1948년 5월 9일 강행된 ‘남조선’의 단  
독선거는, 미국의 강권에 의한 “UN임시조선위원회감시하”의 폭력이었지만, 조  
국이 영구히 분열되는 것에 항거하는 전 민중의 항쟁은 격렬히 달아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27)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무효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남한 전체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무효 처리된 곳이 없었다.

나는 선복(船復)에 삼켜져/ 일본으로 낚아 올려졌다./ 병마에 허덕이는/  
고향이/ 배겨 낼 수 없어 게워낸/ 하나의 토사물로/ 일본 모래에/ 숨어들었  
다./ 나는/ 이 땅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길러진/ 지렁이다./  
지렁이의 습성을/ 길들여준/ 최초의 나라다./ 이 땅에서야말로/ 내/ 인간부  
활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니이가  
타』 제1부 부분)<sup>28)</sup>

4·3항쟁이 배태한 난민으로서의 삶은 소리 없이 몰래 시작되었다. 대놓고 난민이 될 수는 없었다. 일단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감각기관만을 지닌 지렁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신생 대한민국에서 도망쳐야 했던 김시종이 선불리 존재감을 드러내다가는 그곳으로 소환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귀향해서는 안 되는 그로서는 결연한 다짐이 필요했다.

자신만의 아침을/ 너는 바라서는 안 된다./ 빛이 드는 곳이 있으면 흐린  
곳도 있는 법이다./ 붕괴돼 사라지지 않을 지구의 회전이야말로/ 너는 믿기  
만 하면 된다./ 태양은 네 발 아래에서 떠오른다./ 그것이 큰 활 모양을 그  
리며/ 정반대 네 발 아래로 가라앉아간다./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지평이 있  
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지평이다./ 틀림없는 지평이다. 멀리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저물어가는 석양에 안녕을 고해야 한다.// 진정 새로  
운 밤이 기다리고 있다. (「자서」)<sup>29)</sup>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지평이다’는 김시종의 선언적 다짐이다. 통한의 상황에서 “시아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자기가 편히 서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의 바깥을, 멀리 지평 바깥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발밑에서 찾으”<sup>30)</sup>리라는 권토중래요 심기일전이다. 난민으로서 김시종은 일본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4·3항쟁으로 표출했던 혁명의 꿈을 일본에서나마 실천하고자 하였다. 난민 김시종은 1950년 1월

28) 김시종, 『니이가타』, 29-31쪽.

29) 김시종, 『지평선』, 11쪽.

30) 이진경, 앞의 책, 54쪽.

제주도에서 남로당 활동을 했던 경력이 인정받아 일본공산당에 입당했고, 그것이 '재일(在日)'의 상황인 그에게 새로운 실천의 기반이 되었다.

### Ⅲ. 유민으로서의 재일

여러 논자들이 말했듯이, 김시종의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삶은 望郷이 아니라 實存이다. 김시종은 1953년 오사카시인집단 명의의 시지 『진달래』를 창간하여 주도할 때부터 이미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화된 조국이나 고향을 그리기보다 일본 사회에 살아가는 자이니치 자신들의 실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sup>31)</sup>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난민인 그에게 돌아갈 수 있거나 돌아갈 만한 나라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떨어진다./ 희뿌연 여름을 휘젓고/ 그늘지는 여름을 빛나며 떨어진다./ 위도(緯度)를 찢은 흙먼지가/ 머리털에 휘감긴/ 풀잎이/ 운모도 반짝/ 허공에 떨어진다./ 그림자까지 태워버린/ 섬광이 속임수다./ 피해자만 있는 희생이 있고/ 나를 눈멀게 한/ 나라는 없다./ 있는 건 그림자 속/ 내 그늘이다. (「그림자에 그늘지다」 부분)<sup>32)</sup>

청춘과 열정을 바쳐 세우려던 통일독립국가가 멀어져 버렸기에 돌아갈 나라가 없어진 김시종으로서는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당당히 실천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결코 주민이나 시민의 일원일 수 없었다. 일본은 “살아야 할 곳이지만 편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31) 장인수, 「문화서클운동의 정치성과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 1950년대 서클지 『진달래』의 성격과 그 의의」,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160쪽.

32) 김시종, 『이카이노 시집』, 이진경 외 옮김, 도서출판b, 2019, 131쪽. 한국에서 『이카이노 시집』 번역본은 『계기음상』, 『화석의 여름』 번역본과 함께 묶여 간행되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인용되는 작품이 수록된 시집 제목만 제시키로 한다.

‘재일’의 땅<sup>33)</sup>이었다. 그의 일본에서의 삶은 생존의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는 ‘流民’으로서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눈앞에 우선적으로 포착된 현실도 유민으로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실상이었다.

흡사 돼지우리 같은/ 오사가 한 구석에서 말이야/ 에헤요 하고/ 도라지의 한 구절을 부르면/ 눈물이 점점 차올라//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이 노래를 좋아했던 아빠가/ 폐품을 줍고 고물을 찾아다니며/ 탁배기 한 사발이라도 걸치면/ 아빠는 바로 도라지를 불렀지// 울리지도 않는 폐품 수집통을/ 두드리며 노래했지, 두드리며 울었지/ 꼬맹이들이 지식거려서/ 망연자살하며 고향을 쳤어/ 그야 참말로 마음이 쓸쓸했을 거야// 도라지 도라지 하고 부를까/ 아리랑 아리랑 하고 부를까/ 탄광에서 죽은 아빠가 떠올라/ 감자처럼 타 죽은 엄마 생각에/ 에헤요 하고 노래를 불러볼까 (「유민 애가」 부분)<sup>34)</sup>

오늘도 체포된 조선인/ 암시장 담배를 만드는 조선인/ 어제도 압류 당한 조선인/ 탁배기를 제조하는 조선인/ 오늘도 깎고 있는 조선인/ 고철을 줍는 조선인/ 지금도 찌부러진 조선인/ 개골창을 찾아다니는 조선인/ 어제 오늘도 조선인/ 폐지를 줍는 조선인/ 밀치고 우기는 조선인/ 리어카가 손상된 조선인. (「재일조선인」 부분)<sup>35)</sup>

김시중의 첫 시집 『지평선』에는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이 적잖이 나타난다. 생계유지를 위해 그들이 줍는 폐품, 폐지, 고철, 고물과 재일조선인들은 거의 비슷한 신세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의 그들은 식민지시기를 견뎌낸 후에도 지저분하게 내팽개쳐진 존재인 것이다. 직접 빛은 탁배기와 조선민요를 흥얼거림으로써 다소나마 위안을 삼으면서 견뎌낸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밀입국자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모습은 약 20년 뒤에 나온 『이카이노 시집』에서도

33) 이진경, 앞의 책, 51쪽.

34) 김시중, 『지평선』, 101-102쪽.

35) 위의 책, 125쪽.

비슷한 양상으로 포착된다.

두들겨준다/ 두들겨준다/ 분주함만이/ 밥의 희망이지./ 마누라에 어린것  
에/ 어머니에 누이./ 입에 고이는 못(釘)을, 땀을/ 뺀고 두들기고/ 두들겨댄  
다./ 일당 오천 엔/ 벌이/ 열 켄레 두들겨/ 사십 엔/ 한가한 놈은/ 계산해  
봐// 두들기고 나르고/ 쌓아올리고/ 온가족이 달려들어 살아간다./ 온 일본  
의 구두 밭창/ 때리고 두들겨/ 밥으로 삼는다. (「노래 또 하나」 부분)<sup>36)</sup>

구두 수선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어느 재일조선인 가정의 지난  
한 삶이 매우 인상적으로 포착된 작품이다. 설 새 없이 구두 밭창 두들  
기는 소리가 강한 반복적 리듬으로 표현되면서 고된 노동 속 불투명한  
전망의 생활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시적 반복이 지닌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의 신산스러운 삶에 스며 있는  
팽팽한 긴장과, 어느 순간 이러한 삶을 방기하고자 하는 이완이 교차되  
는 삶을, 김시종은 그의 예민한 시적 감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sup>37)</sup>고  
할 수 있다.

없어도 있는 동네./ 있는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동네./ 전차는 되도록  
먼 곳에서 달리고/ 화장터만은 바로 옆에/ 눌러앉아 있는 동네./ 누구나 알  
고 있지만/ 지도에도 없고/ 지도에 없으니/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니/  
사려져버려도 괜찮고/ 어찌되든 좋으니/ 제멋대로 한다네. (...중략...) 어딘  
가에 뒤섞여/ 외면할지라도/ 행방을 감춘/ 자신일지라도/ 시큼하게 고여/ 새  
어나오는/ 짜디짠 육신거림은/ 감출 수 없다./ 토착의 시간으로/ 내리누르며  
/ 유랑의 나날 뿌리내리게 해온/ 바래지 않는 가향(家鄉)을 지울 순 없다./  
이카이노는/ 한숨을 토하게 하는 메탄가스/ 뒤엎켜 휘감기는/ 암반의 뿌리.  
/ 의기양양한 재일(在日)에게/ 한 사람, 길들여질 수 없는 야인(野人)의 들  
판./ 여기저기 무언가 흘러넘치고/ 넘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대접하기  
좋아하는/ 조선의 동네./ 일단 시작했다 하면/ 사흘 낮 사흘 밤/ 징소리 북  
소리 요란한 동네./ 지금도 무당이 미쳐 춤추는/ 원색의 동네./ 활짝 열려

36) 김시종, 『이카이노 시집』, 37-38쪽.

37) 고명철, 「식민의 내적 논리를 내파(內破)하는 경계의 언어」, 고명철 외 7인, 『김시종, 재일의 중력과 지평의 사상』, 보고서, 2020, 32-33쪽.

있고/ 대범한 만큼/ 슬픔 따윈 언제나 훌어버리는 동네./ 밤눈에도 또렷이  
배어들고/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머나먼 일본의/ 조선 동네.  
(「보이지 않는 동네」)<sup>38)</sup>

주로 오사카의 이카이노(猪籠町)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을 그려 놓았다. 이카이노는 1920년대 무렵부터 일본에 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게 되면서 조선인 집단거주지가 된 곳이다. 쓰루하시(鶴橋)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그곳은 1973년부터는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쿠노구(生野區)가 되었다. 일본인들에게는 투명인간으로 취급되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재일조선인들이다. 그들은 일본사회에서의 철저한 마이너리티였으며, 고국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인식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들이지만 결코 정체되어 있지는 않다. 야인처럼 다소 거칠면서도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간다. 도라지타령이나 아리랑을 부르는가 하면 며칠 동안 굶판을 벌이면서 갖은 슬픔을 걱정적으로 해소하곤 한다. 그래야만 ‘사라지고 있는’ 동네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없어도 있는 자는 존재감이 강한 자”인바, “이카이노는 의기양양한 기쁨도, 죽어도 눈 감을 수 없는 통한도, 있어도 없는 자의 약함이 아니라 없어도 있는 자의 강함”<sup>39)</sup>이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처지에서도 견지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지가 충분히 감지된다.

아버지는 손을 붙잡힌 채 건넜다/ 여덟 살 때./ 나무 향(香)마저 풋풋한  
다리/ 흐르듯 수면에 별들이 떨어져 있었다./ 눈부시기만 했던 다리 옆 전  
등의 일본이었다.// 스물둘에 징용되어/ 아버지는 이카이노 다리를 뒤로 하  
고 끌려갔다./ 나는 갓 태어난 젖먹이로/ 밤낮이 뒤바뀌어 셋방 사는 어머  
니를 애먹였다./ 소개(疏開) 소동도 오사카 변두리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저 멀리 도시는 하늘을 그슬리며 불타고 있었다./ 나는 지금 손자의 손을  
잡고 이 다리를 건넌다./ 이카이노 다리에서 늙어 대를 잇고 있지만/ 지금

38) 김시중, 『이카이노 시집』, 17-23쪽.

39) 이진경, 앞의 책, 165쪽.



도 더러운 이 강물 가는 곳을 모른다./ 어디 오수(汚水)가 여기에 고여/ 어느 출구에서 거품을 내는지/ 가 닿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 그제 이카이노를 빠져나가는 것이 꿈이었던/ 두 딸도 이제 엄마다./ 나도 여기서 마중 나올 배를 기다리며 늙었다./ 그래도 이제 운하를 거슬러 하얀 배는 찾아오리라./ 좋잖아 오사카/ 모두가 좋아하는 오사카 변두리 끝 이카이노 (「이카이노 다리」)<sup>40)</sup>

위의 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매우 의미 있게 작용한다. 우선, 시간 상으로는 재일조선인이 살아온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자의 아버지, 화자, 화자의 딸, 화자의 손자(딸의 자식)까지 가족 4대의 체험이 긴밀히 엮여 관통되고 있다. 도일, 히라노운하 건설, 징용, 태평양전쟁, 43항쟁 등의 현대사가 다리 아래의 더러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공간적으로 본다면, 넓게는 오사카와 제주도, 좁게는 이카이노 다리가 무대가 되었다. ‘疏開 소동’이란 표현에서는 태평양전쟁에서의 미군에 의한 폭격이 우선 떠올려지겠지만, 김시종의 격정적 체험인 43항쟁에서 군경의 토벌과 관련된 소개 작전도 연결시킬 수 있다. 다리는 세대를 이어주며 미래의 희망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고 있다.<sup>41)</sup> ‘하얀 배’가 오수의 운하를 거슬러 그쪽으로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감지된다.

세월이 흘러 그러한 희망이 제한적·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시적인 기회가 김시종에게 다가왔다. 다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다녀오기로 하자/ 메워질 리 없는 거리의 간격/ 찬찬히 더듬어 지켜보기로 하자// (...중략...) 역시 나가봐야겠어/ 누렇게 퇴색된 기억마저 뒤영켜/ 어쩌면 지금도 거기서 그대로 바래고 있을지 몰라// 숲은 목선 바람의 바다/ 숨죽인 호흡을 엄습해/ 기관총이 쓰러뜨린 광장 그 절규마저 흘뜨리고/ 시대는 흔적도 없이 그 엄청난 상실을 싣고 갔다/ 세월이 세월에

40) 김시종, 『화석의 여름』, 이진경 외 옮김, 도서출판b, 2019, 256-257쪽.

41) 김응교, 「고통을 넘어선 구도자의 사랑」, 『일본의 이단야: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소명출판, 2020, 240-243쪽 참조.

게 버림받듯/ 시대 또한 시대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득한 시공이 두고 간  
 향토여/ 남은 무엇이 내게 있고 돌아갈 무엇이 거기에 있는 걸까/ 산사나  
 무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열매를 맺고/ 총탄에 뚫린 문짝은 어느 누가 어찌  
 고쳐/ 어딘가 흙더미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흙 묻은 뼈를 삭히고 계실  
 까/ 예정에 없던 음화(陰晝) 흰 그림자여// 어쨌든 돌아가 보는 거다/ 인적  
 끊어진 지 오래인 우리 집에도/ 울타리 국화 정도는 씨가 이어져 흐르러져  
 있으리라// 비어 있던 집 빗장을 풀고/ /꼼짝 않는 창문을 달래어 열면/ 간  
 혀 있던 밤의 한구석도 무너져/ 내게도 계절은 바람 물들이며 오리라/ 모  
 든 것이 텅 빈 세월의 우리(檻)에서/ 내려앉는 것이 켜켜이 쌓인 이유임도  
 알게 되겠지// 모든 것이 거부당하고 찢겨버린/ 백일몽의 끝 그 시작으로부  
 터/ 괜찮은 과거 따위 있을 리 없다/ 길들어 친숙해진 재일에 눌러앉은 자  
 족으로부터/ 이방인 내가 나를 벗고서/ 가닿는 나라의 대립 사이를 거슬러  
 갔다 오기로 하자// 그래 이제는 돌아가리라/ 한층 석양이 스며드는 나이가  
 되면/ 두고 온 기억의 곁으로 늙은 아내와 돌아가야 하리라 (「이룰 수 없  
 는 여행 3-돌아가다」)<sup>42)</sup>

김시중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임시여권을 발급받  
 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무려 49년 만에 제주도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  
 그렇다고 그가 꿈꾸던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 아니었다. 대한민국  
 이라는 국민국가는 그가 정녕 회귀하고자 하는 고국은 아니었기 때문  
 이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분단된 반쪽인 그곳이 그에게  
 ‘나를 눈멀게 한 나라’일 수는 없었다. 김시중으로서는 나라의 대립 틈  
 새를 비집고 ‘두고 온 기억’ 속의 고향으로 잠시 동안 돌아가 볼 수 있  
 었을 따름이다.

김시중은 2003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사후 사십여 년이 지나 찾아낸 부모의 묘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고 적어도 연 한두 차례는 성묘하겠다”는 노년의 결단에서였다. 그렇  
 지만 그는 “총칭으로서의 ‘조선’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는 조금도 흔들림  
 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sup>43)</sup>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

42) 김시중, 『화석의 여름』, 262-264쪽.

43) 김시중, 「인사」, 『조선과 일본에 살다』, 272쪽. 「인사」은 2003년 12월 10일 지  
 인들에게 돌린 글이다.

렇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일본의 국민일 수도 없기에, 여전히 유민일 수밖에 없다. 그에게 ‘재일’은 안식이나 정착과는 거리가 멀었던 땅에서의 실존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재일을 산다는 것은 그 당연하지 않고 편하지 않음을 떠안고 ‘일본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돌아갈 곳을 찾지 않고 살아야 할 지금 여기를 사는 것”<sup>44)</sup>인바, 김시종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다. 그는 재일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온갖 불편함이나 고통스러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한 시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경지는 그를 둘러싼 모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었기에 도달 가능한 것이었다.

#### IV. 월경의 상상력

난민으로서의 김시종이 유민이 되어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반도는 격동의 무대가 되었다. 한국전쟁, 4·19혁명, 광주항쟁 등 한반도의 격변들은 국경 너머의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고국의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몸이었다.

거기에는 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바래지는 시간 속」 부분)<sup>45)</sup>

냉전시대의 국경이라는 삼엄한 경계가 정치적 난민의 처지인 김시종을 고국의 걱정적이면서도 처절한 현장에 동참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버티어 서 있는 지평을 기반으로 견고한 국경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름의 실천 방식이었다. 그것은 그가 청춘을 바쳤던 4·3항쟁의 연장선으

44) 이진경, 앞의 책, 71쪽.

45) 김시종, 『광주시편』, 김정례 옮김, 푸른역사, 2014, 31쪽.

로서 혁명의 꿈을 이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내리 짚는/ 경찰 곤봉의/ 빛속에서/ 피거품이 된/ 동족애가/ 비명을 지르고/ 사산(四散)했다./ 나는/ 바야흐로/ 빛나는/ 포로/ 변기가/ 보장된/ 혈거에 있으면서/ 여전히 변통(便痛)할 수 없는/ 개운치 않게/ 웅크리고 있는/ 스타(吹田) 피고다./ 더구나!/ 조국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고삽(苦澁)에 가득 찬/ 자세였던가./ 내가/ 일본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 대부분은/ 배설물/ 방기소(放棄所)에 현혹된/ 혼(魂) 때문이라니/ 이 무슨/ 참사냐!/ 제트기가/ 어지러이 날아다니는/ 일본에서/ 동포를 살육하는/ 포탄에 덩벼든/ 분격(憤激)을/ 남몰래/ 더럽힌/ 소화불량의/ 노란 반점(斑點)에/ 남긴 것은/ 이 무슨 빌어먹을/ 십년이나! (『니이가타』 제1부 부분)<sup>46)</sup>

스타사건(吹田事件)은 오사카부 스타시에서 노동자, 학생, 재일조선인이 한국전쟁에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전개한 투쟁이다. 한국전쟁 발발 2주년 전날인 1952년 6월 24일 밤 도요나카시(豊中市)의 오사카대학 북교 교정에서 오사카부 학련 주최로 열린 ‘조선동란 2주년 기념 전야제·이타미(伊丹) 기지 분쇄, 반전·독립의 밤’에 약 1000명이 모여들었다. 자정이 지난 후 참가자 중의 별동대가 우익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 집을 화염병으로 습격하기도 했으며, 이후 900여 명의 시위대는 스타시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스타 조차장 구내를 25분간 시위행진을 벌였다. 스타역에서 경관이 권총을 발사하자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응전했고,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소요죄와 위력업무방해죄 등의 용의로 300여 명을 체포해 111명을 기소했다.<sup>47)</sup> 김시중은 이를 “6·25전쟁과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에 반대하는 데모대가 경관 부대와 충돌한 스타 사건”<sup>48)</sup>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제주 출신 재일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전운동”<sup>49)</sup>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3항쟁이라는 가까운 기억을

46) 김시중, 『니이가타』, 53-55쪽.

47)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 「스타사건」, 재일코리안사전편집위원회, 『재일코리안사전』, 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218-219쪽.

48) 김시중, 『니이가타』, 178쪽.

공유하는 재일 제주인들의 투쟁 대열에 김시종은 함께 했고, 그것을 장편시 속에 의미 있게 돋을새김 한 것이다. “군수열차를 한 시간 늦추면 동포를 천 명 살릴 수 있다던 당시의 저 절실한 호소는 육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반전평화를 향한 맹세가 되어 나의 마음에서 울리고 있”<sup>50)</sup> 다는 회고에서 김시종의 연대 투쟁의 메시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부가 검으니/ 반점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겠지//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니/ 빠진 머리털도 신경 쓰이지 않았겠지// 오장육부의 위액까지 다 토해내/ 문드러진 개처럼 죽는다 해도// 이들 태양의 자식은/ 인간의 죄로 비난 받지 않았겠지// 이목의 바깥에서/ 먼 섬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 (「남쪽 섬: 알려지지 않는 죽음에」 부분)<sup>51)</sup>

남양군도의 비키니 환초(Bikini Atoll)에서 미군이 자행한 핵실험과 관련된 작품이다. 미군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12년 동안 이 부근에서 67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1954년 3월 일본 어선이 피폭되면서 반핵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먼 섬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닥친 제국주의의 폭력은 김시종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 반핵운동은 4·3항쟁에서 반제국주의 통일독립을 추구했던 그의 열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기왓조각이 가득 찬 매립지를 파고 또 파서/ 2천 수백 관이나 되는 대량의 쓰레기를/ 시바타니(芝谷) 매립지에 처분한 모양인데/ 있는 대로 매장한 것이/ 어족(魚族)뿐이라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참치가 등신대인 것에도/ 놀랐는데/ 구멍 하나에 처넣어진 채로/ 기왓조각에 짓눌린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이전에도/ 이러한 장례식을 알고 있다/ 탄 사체는 분명히 검게 그을렸는데만/ 시대는 산 채로, 목숨을 끊고 사라졌다. (「처분법」 부분)<sup>52)</sup>

49) 윤여일, 앞의 논문, 360쪽.

50)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255쪽.

51) 김시종, 『지평선』, 36쪽.

김시종의 원폭에 대한 접근은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태도와는 다르다. 김시종의 시는 “기존 피해만을 논하는 일본의 피폭 내셔널리즘의 도식을 해체시키고, 일본의 전쟁책임 및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가해(加害)의 언설을 (...) 엮고 있”<sup>53)</sup>는 원폭문학이다. 이런 반핵평화운동과 연대하는 김시종의 시는 “내면 깊숙이 4·3의 기억을 간직한 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권력을 향해 투쟁하는 보편성을 추구해 왔”<sup>54)</sup>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러한 보편성은 정치적 난민의 처지를 광범위하게 승화시키는 상상력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틈새를 활용한 전략이었음이 다음 시에서 확인된다.

애당초 눌러앉은 곳이 틈새였다/ 깎아지른 벼랑과 나락의 갈라진 틈/ 똑같은 지층이 똑같이 폭 패여 서로를 돋우고/ 단층을 드러내고 땅의 갈라짐이 깊어진다/ 그것을 국경이라고도 장벽이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기에 평온한 벽이라고도 한다/ 거기에서는 우선 아는 말이 통하지 않고/ 축각의 꺼림칙한 낚새만이 눈과 귀가 된다(「여기보다 멀리」 부분)<sup>55)</sup>

김시종은 난민으로서의 자신의 자리가 바로 틈새였기에 그 틈새를 한껏 활용하고 경계를 그어놓는 금[線]을 자유로이 넘나들고자 했다.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 국가의 경계와 혼돈을 넘어서는 재일의 ‘틈새’를 사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재일’의 실존을 형상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적 방향으로 삼았”<sup>56)</sup>던 것이다. 특히 그는 경계 위에서 특정의 세력이나 범주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갱신하고 분투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서둘러 가 주세요./ 총련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52) 위의 책, 38-39쪽.

53) 이영희, 「고통의 문학적 재현: 김시종의 원폭 관련 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77, 일본어문학회, 2017, 266쪽.

54) 하상일, 「김시종의 ‘재일’과 제주4·3」, 고명철 외 7인, 『김시종, 재일의 중력과 지평의 사상』, 보고서, 2020, 95쪽.

55) 김시종, 『화석의 여름』, 241-242쪽.

56) 하상일, 「김시종과 ‘재일(在日)’의 시학」, 『국제한인문학연구』 42, 국제한인문학회, 2019, 186쪽.

급하시다면/ 소리쳐 주세요/ 총련에는/ 접수처가 없습니다.// 불일이 급하시다면/ 다른 곳으로 가 주세요/ 총련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총련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애용해주신 덕분에 전화요금이/ 쌓여 멈춰버렸습니다./ / (...중략...)// 속은 어차피 썩어있습니다./ 끝만 번지르르하다면,/ 우리의 취미로는 딱입니다./ 화장실은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오사카 총련」 부분)<sup>57)</sup>

그가 몸담던 조직도 갱신과 분투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민전(재일 조선통일민주전선)이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으로 변신한 이후 조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의 지도를 강하게 받게 되었다. 총련은 김시종이 주도하는 『진달래』에 대해서도 거센 공격으로 몰아붙였고, 김시종은 일련의 일방적인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다. 「오사카 총련」은 그러한 조직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으며 야유하는 작품이다. 재일조선인들의 현실적인 삶과는 유리된 채로 체제 찬미에 몰두하며 조직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총련에 대한 풍자가 돋보인다. 위의 인용에 뒤이어서는 “동지가 죽었습니다./ 과로가 쌓여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라며 경직된 총련으로 인해 조직원들이 희생되는 상황을 구체화한다. 총련의 교조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김시종으로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관료화된 조직 속에서 조직의 지침대로 활동하는 데에만 진력했다면 진정한 경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시야말로 북을 중심에 놓는 ‘민주기 이론’에서 그가 확실히 벗어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이처럼 김시종은 또 하나의 경계를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당당한 경계인의 위상을 확보해 갔다. 현실에는 그가 목숨 거는 혁명을 통해 세우려던 온전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음을 절실히 확인한 것이다.

통일까지도 국가에 내맡기고/ 조국은 완전히/ 구경하는 위치에 모셔두었

57) 1957년 간행된 『진달래』 18호에 수록된 작품임. 오사카조선시인집단, 『진달래 · 가리온』 4, 재일에스닉잡지연구회 옮김, 지식과 교양, 2016, 173-174쪽.

다./ 그래서 향수는/ 감미로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재일을 사는/ 일인독점의 원초성이다./ 일본인에 대해서가 아니면/ 조선이 아닌/ 그런 조선이/ 조선을 산다./ 그래서 나에겐 조선이 없다. (「나날의 깊이에서 1」 부분)<sup>58)</sup>

김시중은 “일본에 온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요컨대 한국에서 온 밀항선은/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선으로 지금 가고 싶지 않다”<sup>59)</sup>고 밝혔다. 그리고 총련과 북의 귀국사업에 대해 “적체된 화물로/ 전략한/ 귀국”<sup>60)</sup>으로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에게 진정한 조선일 수 없었다. “김일성 원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나날의 깊이에서 2」)<sup>61)</sup> 그런 곳이 진정한 조선일 수 없음이다. 남녘만이 아니라 북녘도 진정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광주시편』에서의 남녘의 현실에 대한 비장한 고발이나 섬뜩한 알레고리도 더욱 돋보이는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분단된 세계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남과 북을 넘어선다. “재일이야말로 통일을 산다”<sup>62)</sup>는 신념을 김시중은 절체절명의 체득에서 승화시킨 월경의 상상력으로써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거리를 빠져나가는 나비를 보았다/ 혼잡 속을 꽃잎처럼 누비며/ 바짝 짙은 가로수 드러난 목덜미를/ 망설이듯 넘어갔다 (「예감」 부분)<sup>63)</sup>

나비는 “새하얀 의지의 꽃잎”(「예감」)인바, 그것은 김시중의 분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나비 같은 존재가 되어 혼잡한 세상을 어루만지고 응시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포월(抱越)’<sup>64)</sup>의 상황이다. 월경의 상상력은

58) 김시중, 『이카이노 시집』, 50-51쪽.

59) 김시중, 『니이가타』, 146-147쪽.

60) 김시중, 『니이가타』, 175쪽.

61) 김시중, 『이카이노 시집』, 63쪽.

62) 김시중, 『재일의 틈새에서』, 윤여일 옮김, 돌베개, 2017, 358쪽.

63) 김시중, 『화석의 여름』, 231쪽.

64) 김진석은 『초월에서 포월로』(솔, 1994)에서 포복하는 초월이라는 의미로 ‘포월(匍越)’을 제안했는데, 여기서의 끌어안아 넘나든다는 의미로는 ‘抱越’이 더 어



주체가 관계하는 것들에서 초월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보듬는 가운데 높은 차원에서 넘나들며 작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관계하는 것들을 “쉽게 내던질 수 없는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 이는 한편 “쉽게 수락할 수 없는 곤혹을 받아들”<sup>65)</sup>이는 가운데 폭을 넓히며 역동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인 창조와 창안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에는 목련이 피지 않으리라./ 서울 대로에서 빈번하게 터지던/ 최루탄이/ 마드리드에서 로마에서/ 시드니에서도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겨우 핀 작은 꽃들/ 밀어닥친 시위대가 짓밟고 갔다./ 하늘도 틀림없이 목이 메었으리라./ 때아닌 비가 바람과 함께 쏟아져내리고/ 가로수의 새싹을 전율케 하며/ 거리 전체를 물보라로 뿌옇게 만들었다.// 오오사까지는 아무래도 소나기인 듯했다. (「목련」 부분)<sup>66)</sup>

김시종은 남과 북 그리고 일본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국경도 넘나들며 사유한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한다. 그가 서 있는 오사카만이 아니라,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온 세계가 동시에 그의 시야에 포착되고 있음이 위의 시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김시종은 “정언명령처럼 주어지는 이념에 의한 결정이나 주류의 질서를 경계하고 언제나 스스로 직접 ‘더듬거리며 찾은/감촉’(『니이가타』 56쪽)만을 믿고 살아온 것”이며, “자신이 살아온 공간의 역사적 조건들을 직시하고 직접 부딪쳐가면서 그 의미를 탐색해 온 시인”<sup>67)</sup>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는 생의 바닥에 전율하다, 공산주의자들의 관료화에 환멸을 느꼈고, 재일조선인으로서 이카이노라는 공간을 감각해 나가면서, 남과 북을 아울러 비판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sup>68)</sup>기에,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인식의 확장을 통해 폭넓은 안목

---

울릴 것 같다.

65) 이진경, 앞의 책, 333쪽.

66) 김시종, 『잃어버린 계절』, 76쪽.

67) 남승원, 앞의 논문, 87쪽.

68) 오창은,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시 세계」, 『어문론집』

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경계인으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제나 타자와의 ‘고통’에 응답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담긴 그의 시는 한국문학이자 일본문학이고 동시에 세계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sup>69)</sup>이라는 평가는 지극히 온당하다고 판단된다. 김시종이 체득한 월경의 상상력은 그만큼 빛나는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V. 마무리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김시종은 청년시절 제주4·3항쟁에 조직원으로 참여했다가 토벌군경의 검거를 피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밀항한 정치적 난민이었다. 1949년 여름 이후 주로 오사카 일대에서 생활한 그는 첫 시집 『지평선』(1955)에서부터 최근의 『등의 지도』(2018)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집을 내면서 70년 동안 문학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일본어로만 시를 발표하였지만 언제나 일본 시단의 바깥에 있었으며, 그렇다고 대한민국 시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단의 내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의 시에는 4·3항쟁을 통해 혁명을 도모했던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면모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으며, 유민으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열악한 상황이 실존의 문제로 예리하게 포착되었다. 특히 국경(이념)을 강조하면 인류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포월(抱越)’을 통해 월경하는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라야 진정한 평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온몸으로 입증하였다. 이렇듯 4·3항쟁의 정치적 난민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맞닥뜨린 제반 현실을 심도 있고 폭넓게 성찰하여 승화시킨 월경의 상상력은 김시종의 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김시종은 자신이 직접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강상중 도쿄대

45, 중앙어문학회, 2010, 55쪽.

69) 이영희, 앞의 논문, 280쪽.

학 교수, 박일 오사카대학 교수, 소설가 양석일 등의 재일조선인들과 더불어 오사카 이바라키(茨城) 지역에 ‘코리아국제학교’를 2008년 건립하고 교장이 되었다는 점을 덧붙여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학교의 건학이념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며 (...) 복수의 국경을 넘어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이룰테면 ‘越境人の 육성’<sup>70)</sup>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면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김시종이 살아온 월경인으로서의 면모를 후세에 전승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4·3항쟁의 정치적 난민에서 뼈를 깎는 인식의 확장과정을 통해 진정한 월경인으로 거듭나는 김시종의 장정(長征)은 실로 치절하면서도 눈물겹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피어난 월경의 상상력은 그만큼 빛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바로 그것으로 인해 김시종 문학이 세계문학의 典範 반열에 당당히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0) 남승원, 「김시종 시 연구: 탈식민적 전략으로서의 공간 탐구」,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113쪽.

## 참고문헌

- 고명철, 「식민의 내적 논리를 내파(內破)하는 경계의 언어」, 고명철 외 7인, 『김시중, 재일의 중력과 지평의 사상』, 보고서, 2020.
- 김석범·김시중(문경수 역음),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이경원·오정은 옮김,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김시중, 『경계의 시』, 유숙자 옮김, 소화, 2008.
- 김시중, 『광주시편』, 김정례 옮김, 푸른역사, 2014.
- 김시중, 『니이가타』, 곽형덕 옮김, 글누림, 2014.
-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윤여일 옮김, 돌베개, 2016.
- 김시중, 『재일의 틈새에서』, 윤여일 옮김, 돌베개, 2017.
- 김시중, 『지평선』, 곽형덕 옮김, 소명출판, 2018.
- 김시중, 『이카이노시집/ 계기음상/ 화석의 여름』, 이진경 외 옮김, 도서출판b, 2019.
- 김시중, 『잃어버린 계절』, 이진경 외 옮김, 창비, 2019.
- 김시중, 「경계는 내부와 외부의 대명사」,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2019.
- 김응교, 「고통을 넘어선 구도자의 사랑」, 『일본의 이단야: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소명출판, 2020.
- 남승원, 「김시중 시 연구: 탈식민적 전략으로서의 공간 탐구」,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 남승원, 「김시중 시의 공간과 역사 인식: 제주에서 니이가타(新潟)까지」, 『영주어문』 32, 영주어문학회, 2016.
- 니시무라 히데키[西村秀樹], 「스이타사건」, 재일코리안사전편집위원회, 『재일코리안사전』, 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문경수, 「4·3과 재일 제주인 재론(再論): 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 19, 제주4·3연구소, 2019.
- 송혜원,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2019.
- 오사카조선시인집단, 『진달래·가리온』 1~5, 재일에스닉잡지연구회 옮

- 김, 지식과 교양, 2016.
- 오창은,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 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시 세계」, 『어문  
론집』 45, 중앙어문학회, 2010.
- 윤여일, 「4·3 이후 김시종의 ‘재일’에 관한 재구성」,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2019.
- 이영희, 「고통의 문학적 재현: 김시종의 원폭 관련 시를 중심으로」, 『일  
본어문학』 77, 일본어문학회, 2017.
- 이진경,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 도서출판b, 2019.
- 장인수, 「문화서클운동의 정치성과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 1950년대 서  
클지 『진달래』의 성격과 그 의의」,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  
족문화학회, 2018.
- 하상일, 「김시종의 ‘재일’과 제주4·3」, 고명철 외 7인, 『김시종, 재일의  
중력과 지평의 사상』, 보고서, 2020.
- 하상일, 「김시종과 ‘재일(在日)’의 시학」, 『국제한인문학연구』 42, 국제한  
인문학회, 2019.
- 한보희, 「난민의 나라, 문학의 입헌(立憲)」, 『작가들』 59, 인천작가회의,  
2016.
- 호소미 가즈유키[細見和之],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동선희  
윽김, 어문학사, 2013.

ABSTRACT

Political refugee and border crossing literature  
: In the Case of Kim Si-jong

Kim, Dong-yun<sup>\*</sup>

Kim Si-jong (1929~ ) was a political refugee who participated in the Jeju April 3 uprising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when he was a young man and smuggled himself to Japan at the risk of his life to avoid the arrest of the punitive military police. After living mainly in Osaka since 1949, he has been engaged in literary activities for 70 years, publishing a number of poems from 『Horizon Line(地平線)』 (1955) to 『a Map on One's Back(背中の地図)』(2018). He wrote poems only in Japanese, but he was outside the Japanese literary circle, not inside the Korean literary circle 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 was a man of strict vigilance. His poems successfully consist of the aspect of political refugees who pursued the revolution, the existential problems as Koreans in Japan, and the sublimation of imagination beyond boundaries. In particular, he is a poet who has proved with his whole body that if we emphasize the border (ideology), peace of mankind is impossible, and that we can create a whole world of peace only when the imagination beyond the border is exercised properly. Kim Si-jong's long journey from political refugees to true a marginal man through the process of expanding his difficult perception of the April 3 uprising can be said to be both heartbreaking and tearful. The imagination of crossing boundaries bloomed

---

\* Professor, Korean Language &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amid such adversity is as shining as that. And I think that's why Kim Si-jong's literature can proudly establish itself as a model for world literature.

Key-words: Kim Si-jong, Jeju April 3rd Uprising, political refugees, border crossings, Korean residents in Japan

논문투고일 2020. 9. 13.

심사완료일 2020. 9. 27.

게재확정일 2020. 10. 5.